끊임없는 법보시… “수행이 곧 전법”



동봉 스님은 탄자니아인들에게 한글반야심경을 가르쳤다. 첫날 학생들과 기념사진.



동봉 스님이 킬리만자로 산자락에 지은 보리가람스쿨. 아프리카 최초의 불사다.



말라리아 환자 돕기 활동 중인 동봉 스님.



보리가람스쿨 표지판.

‘동봉 스님’

B1면에서 계속

스와힐리어 발음기호로 적어준 〈한글반야심경〉을 탄자니아 사람들이 독송하고 있다. 물론 스님은 그들에게 〈반야심경〉이 무엇인지, 그 글자들이 가진 뜻은 무엇이지도 알려주었다.

스님이 도량을 마련하고 그들에게 처음 던진 것은 ‘참선(좌선)’이었다. 나무 그늘에 앉아 명상에 잠긴 스님의 모습은 탄자니아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였다. “참선이 무엇이냐?”는 탄자니아 사람들의 질문에 스님은 “나를 찾는 일이다”고 대답했다.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물음이 돌아왔고, 스님은 “먼저 〈반야심경〉을 독송해야 한다”고 했다.

탄자니아 사람들은 빠르게 참선에 빠져들었다. 스님이 나무 밑에서 가부좌를 틀면 어느새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물이 흐르듯 바람이 불 듯 만들어진 일상은 ‘법회’가 됐다. 많을 땐 300명이 넘게 마당을 메웠다.

동봉 스님은 매주 참선법회를 열었다. 열었다기보다는 열렸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정해진 날도 없었고 알림도 없었다. 구름이 차면 비가 내리듯 사람들은 스님 곁으로 모여들었다. 스님은 죽비를 들고 한국의 선방에서처럼 참선을 지도했다. 그리고 탄자니아 킬리만자로에서 부처님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다.

한국불교 최초 아프리카 교육도량불사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날아온 ‘동봉’이라는 밀알은 한국불교 최초 아프리카 종립학교불사라는 대작불사를 틔워낸다. 2016년 9월 5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교’가 문을 연다. 아프리카에 한국불교와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설립된 학교는 조계종과 (재)아름다운동행이 3년에 걸쳐 회향한 아프리카 최초의 종립학교다. 역사적인 불사는 동봉 스님으로부터 시작됐다.

동봉 스님이 킬리만자로에 법당을 세우고 참선을 시작했을 무렵, 동봉 스님은 또 하나의 큰 불연을 만난다. 故 이태석 신부다. 이 신부는 아프리카 수단 남부에서 나병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지금도 이 신부는 ‘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린다.

2006년 4월 30일. 동봉 스님의 소식이 TV 전파를 탔고, 이 신부는 방송을 통해 스님의 소식을 듣게 된다. 많은 책을 출간했던 동봉 스님이었다. 이 신부는 오래 전부터 동봉 스님의 책을 통해 스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반가웠다. 두 사람은 케냐에서 만난다.

“스님, 탄자니아에서 무엇을 하려고 오신 겁니까?” 이 신부가 물었다. 스님의 대답은 의외였다. “학교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절이나 명상센터가 아니었다. 부지불식중에 튀어나온 말이었다. 스님은 지금도 왜 그런 대답이 튀어나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한다. 말은 그 자리에서 원력이 된다.

동봉 스님은 다시 킬리만자로를 떠나야했다. 원력이 된 학교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으로 돌아온 스님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다음해 3월 10일까지 탄자니아 불교문화아카데미 건립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서원을 세우고 ‘101’일 국토대장정을 회향한다. 우리절을 출발해 매일 20~30km를 걸어 전국을 순례했다.

국토대장정을 마친 동봉 스님은 다시 킬리만자로로 돌아간다. 그리고 인연이 찾아든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었다. 2008년 8월, 동봉 스님은 박 회장이 후원한 2억 원으로 다르에스살람에 약 3만5천 평의 학교 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봉 스님의 원력은 조계종이 2013년 발표한 아프리카 학교건립 추진 사업과 만나게 된다. 스님은 학교 부지를 (재)아름다운동행에 기증하고 3년 후 이 신부와 약속한 원력을 회향하게 된다.

스님은 킬리만자로 보리가람스쿨에서 참선을 시작하면서 말라리아 환자를 돕는 일도 시작했는데, 탄자니아 전역을 돌며 말라리아 환자의 의료비(약값)를 지원했다. 스님은 봉사와 학교건립 불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다소 무리라고 생각했다.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무척 기뻤지요. 절 하나 지은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불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농업기술을 전함으로써 그들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이고, 그들의 삶에 한국불교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출가 전 〈법화경〉 등 경전 탐독

22세 때 치악산 구룡사서 출가

해인사서 고암 스님 법 이어

용성선사 어록집 등 저술 62권

소셜미디어 전법 ‘기포의 새벽편지’

1500회 돌파 매일 3천여 명 설법

불연으로 가는 길

동봉 스님의 불연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스님은 1975년 치악산 구룡사에서 출가했다. 강원도 횡성 산골에서 태어난 청년은 배움에 대한 생각이 많았다. 〈천자문〉, 〈동몽선습〉 등을 초등학교 입학 전에 서당서 뗐다. 한글보다 한문을 먼저 뗀 셈이다. 열다섯 살부터는 〈명심보감〉을 비롯해 〈논어〉 〈맹자〉 〈소학〉 등을 완독했다. 하지만 스님이 안고 있는 형편은 배움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에 부족했다. 사법고시를 준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스님의 배움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불연으로 이어졌다.

스님의 이모가 치악산 구룡사의 신심 큰 신도였다. 동봉 스님의 불연은 이모 집에서 시작된다. 어느 날 동봉 스님은 이모 집을 찾았다가 새로운 세상의 책들을 만난다. 이모 집에는 〈법화경〉 〈유마경〉 등 경전들이 많았다. 한문에 밝았던 스님은 그 책들을 모조리 읽어버린다. 새로운 세계였다. 스님은 다른 책에서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진리를 경험한다. ‘불교’였다.

1975년 음력 2월 15일 열반재일에 스물두 살의 청년은 이모님이 계신 치악산 구룡사로 향한다. 난생 처음 하는 걸음이다. 주지 스님의 법문을 듣는다.

“주검이 곧 열반이다.”

동봉 스님은 법회가 끝나고 주지 스님을 찾아가 법문의 뜻을 여쭈었다. 주지 스님의 답은 너무나 허무했다. “주검이 곧 열반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더 묻느냐? 주검이 곧 열반이니라.”

스물두 살의 청년은 이틀 후 다시 구룡사를 찾았고 머리를 깎는다.

상구보리하화중생

동봉 스님의 배움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불연으로 가는 길이었다. 출가한 그해 가을 동봉 스님은 고암 스님과 인연을 맺고 법을 받는다.

학구에서 비롯된 출가는 배움의 길을 여는 법보시로 이어진다. 스님은 지금까지 62권의 책을 출간했다. 초기 경전과 대승경전의 번역서, 해설서를 비롯해 용성선사의 어록집, 산문집 등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다시 동봉의 글자로 회향했다.

“출가자로서 하루하루 수행에 매진하는 것이 곧 전법인 것 같아요.”

스님은 아프리카라는 낯선 땅에 원력을 심은 것을 비롯해 아픈 사람을 돕고 법보시를 하는 등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불사들을 모두 ‘수행’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수행이 대중에게는 전법이 된 것이라고 했다.

2009년 2월 탄자니아에서의 전법을 마치고 귀국한 동봉 스님은 쉼 없는 저술을 이어갔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 시작한다. ‘기포의 새벽편지’다. 매일 3천여 명의 대중에게 전해지는 동봉 스님의 설법으로, 1500회를 돌파했다. ‘기포(kipoo, 起泡)’는 동봉 스님의 아프리칸 이름이다. 탄자니아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으로, 킬리만자로의 최고봉 ‘키보’에서 왔다. ‘빛나는 산’이라는 뜻의 킬리만자로, 그곳에 불상을 새기고 반야심경을 알리고 온 한국 최초의 전법승 기포. 그가 뿌리고 온 佛씨가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맺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2017년 4월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교에서 첫 학생 불자가 나왔다. 4명의 탄자니아 학생들은 조계사에서 계를 받았다. 그 옛날 우리가 순도와 마라난타의 이름을 역사에 적었던 것처럼, 훗날 탄자니아의 역사는 ‘기포’라는 이름을 역사에 그렇게 적을 것이다. 기포 스님은 “수행은 멈출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키보에서 빛나고 있는 만년설처럼 기포의 수행은 계속 되고 있다.



